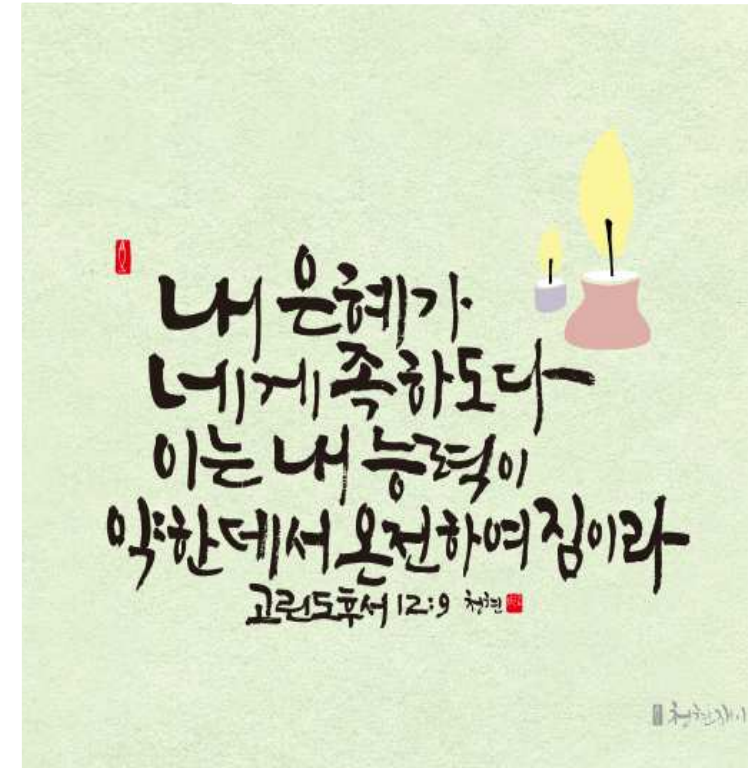


#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 환영:**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주일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같은 시간(오전10시)에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 예배:** 다음 주일은 10월 첫 주일로 성찬식 거행합니다. 주일 친교를 위한 다과 준비에 자원하여 사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디너 감사:** 어제 모임을 위하여 티켓을 구입해 후원해 주시고(\$1,000), 식사서브와 강단/친교실 장식, 주차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특별찬양을 위해 섬겨주신 여선교회 핸드벨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선교회연합회 워커톤:** 오는 토요일(1일) 오전10시 Lake Chabot / 예배인도: 담임목사, 점심준비: 우리교회/열린교회
- 청년부 베이비 샤워:** 다음 주일(10/2) 주일친교 후 친교실, 김진세&박신원 가정(1월 예정), 대니엘&수지 Duggan 가정(11월 예정) 문의: 장세원 목사님
- 주중모임: 북클럽 격주모임(10/1),** 오전7시30분-10시, 교회 도서관(2층), 문의: 이종혁/곽태길 권사님
- 2022년 교인총회 준비모임:** 10월 9일 주일 친교 후 목양실 / 참석자: 신도대표, 임원회장, 연회대표, 행정위원장, 사역위원장, 선교회장 등 / 각 위원회 및 부서의 교인총회를 위한 모임(총회) 일정 조율
- 교회 외부수리:** 본당 2층 외벽공사와 펜스공사를 진행, 펜스 확장을 위한 연내 사전준비 등 / 공사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청빙:**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중 영상예배:** 수요일, 토요일 영상예배를 드립니다.
- 묵상집/성경통독문제:** 통독 3년차 중 첫 번째 해 / 통독과 묵상 그리고 문제풀이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 주일학교:** 주일예배 및 찬양팀 연습(10am), 초/중/고 분반 제자훈련 13주(11am),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학 140명 등록
- 청년부:** 상반기 줌 성경공부 “그리스도인의 생활” (총12과) 상반기 종료 / 격주일 줌미팅 / 잠언 성경필사
- 주일친교 준비:** 자원하여 사인업해 주세요.
- 교우소식:** 연락하신 교우들, 출타하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2022년 표어와 목표

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 목표: 한 영혼 전도하기

## 2022년 기도제목과 성구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14)

##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 1905년에 태동하고 1914년에 창립하여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세상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모임	시간	Oakland Sunday School	
주일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Children	주일 10am
		Youth	2층 예배실
주중영상예배	수요일, 토요일 영상예배	Bible Study	주일 11am
주일아침말씀방	-	Young Adults	격주일 줌미팅 3pm
주일중보기도모임	-		격주목 줌BS 7pm

[오클랜드 한국학교] www.theokschool.com / 가을학기 오픈 8/27/토

##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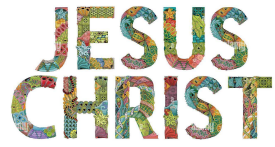
- [담임목사]** 정현섭  
Hyunsup Jung  
hsjungusa@hotmail.com
- [부목사]** 장세원(행정, 청년)
- [전도사]** 민예인(EM, 교육)
- [지휘자]** 오사라
- [반주자]** 황경숙(오르간)  
한선욱(피아노)



##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 Stree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www.newokumc.org

The Church full of Grace and Truth



# 주 일 예 배

2022년 9월 25일 주일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인도: 정현섭 목사 / 오전 10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 장세원 목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Hymn /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회 중 기 도 Prayer / 이종혁 권사

찬양대 특송 Choir Anthem / "주 음성 외에는"

말 씬 봉 독 Bible Reading / 고린도후서 12장 5~10절

설 교 Sermon / 정현섭 목사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새가족 환영과 알림 Welcome & Announcement

✧ 봉헌 및 찬송 Offering & Hymn /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축 도 Benediction /

✧ 이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 10월 예배섬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일	주일회중기도	주중영상예배	9/10월 예배섬김
2	담임목사	수요영상예배 토요일영상예배	[안내/봉헌위원] 김귀임 권사 남정우 권사
9	조길호 장로		
16	정지선 장로		
23	송의섭 장로		
30	-		

## [주중 수요일, 토요일 영상예배]

정현섭 목사 / "기쁨의 언덕으로" 고린도후서/신명기 말씀 묵상

## Welcome!

우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자	김응석 성도님 홍혜원 성도님	방문	한연우 권사님
	최인택 장로님 최희숙 권사님		정지선 장로님
	Harry & Jane Yoon	방문	윤경섭 권사님

## 향기로운 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9월 18일 / 합계: \$4,411.00]

[십일조] 권헌일 배현의 임은자 정기호

[감사헌금] 권헌일 김귀임/근영 손동준 송의섭 윤숙자(생일)  
윤향기/재인 임은자 전병련 황경숙(범사)

[월정/주정헌금] 강일성 곽태길 권헌일 김국희 김단진 김희숙  
남승연 남정우 민예인/하영 박혜숙 배현의 소성희 장청자 전병련  
정신애 정지선 정현섭 홍승일/애순

[지정헌금] 배현의(파라과이) 선교디너 오금희(나눔의동산)  
조재각/윤경(한국학교)

지난 주일/주중예배 참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대면예배	78명	주중영상예배(수/토)	-

속 회	섬 김 이	모 임 보 고	모 임 안 내	선교후원
믿음	윤숙자/정현섭			나눔의동산 파라과이1
사랑	오금희/정현섭			나눔의동산
감사	이문자/정현섭			예수사랑
샬롬	김사현/김우정			멕시코
와보라	박경숙/손수락	7/29/금/12명		파라과이2
운유	권정희/곽태길			러시아
기쁨	양경혜/이선이			러시아
주향한	현순정/양주섭			기아대책
청장년	최규민/정현섭			-
청년	김근환/장세원			-

## Good New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 나를 믿어 주었기 때문에

한 거지가 어느 착한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구걸을 위해 찾아 왔습니다. 무엇인가 줄 것이 없는가 싶어서 그녀는 집안을 찾아보았지만 마침 잔돈이 집에 한 잎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잔돈이 없는데, 마침 빵이 좀 필요해요. 여기 1파운드 짜리 돈이 있으니까, 가서 빵을 좀 사다 주시면 잔돈 가운데서 얼마를 드리겠어요." 그 사람은 심부름을 갔다 왔고, 그녀는 작은 동전을 다시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눈물 짓는 건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무도 나를 믿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상 더 고마울 데가 없습니다."

그녀가 너무 어리석은 마음씨를 가졌기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남자에게 돈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남자를 신뢰해 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일부를 그 남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굶주린 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는 그들에게 돈만 내주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참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재물만이 아니라 그에게 따뜻한 마음,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26일(월) 고후 8-9장	27일(화) 고후 10장
매일 성경통독과 묵상	29일(목) 고후 12장
9월: 고린도후서	30일(금) 고후 13장
	10/1(토) 신명기 1장